광주지검 '개인파산' 법조비리 수사 종결

기업형 알선조직 첫 검거

前고법원장 출신 등 포함 … 법무사 등 15명 추가 적발

광주·전남지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해 온 법조 브로커 사건이 일단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2일 "개인파산·회생 사건 수임 알선 조직 5개를 추가로 수사해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장, 사건 브로커 등 15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영암과 장흥지역 법무사 2명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날 추가로 구속 기소된 M법무사 사무장 이모(40)씨는 2005년 5월3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월급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법무사 문모(75·불구속 기소)씨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개인파산이나 회생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2억5천585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개인파산 법조비리 사건에서 알선조직 7개와 고법원장 출신 이모(67)변호사를 포함한 27명을 적발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 등 8명이 구속기소되고 주모(53) 법무사 등 14명이 불구속 기소, 3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와 연계하고 지점망까지 갖춘 기업형 개인파산 사건 수임 알선조직 S금융을 전국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조 브로커들의 활동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의 개인파산·회생 관련 수임료(200만~250만원)가 다른 지역(150만원)에 비해 높아 의뢰인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던 점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종호 특수부장은 "기업형 알선 브로커 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각 검찰도 이에 따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은 검찰 수사 착수 후 개인파산·회생 신청에 대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광군수 친척 구속

뇌물공여 혐의… 강군수는 피의자 신분 재소환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시공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2일 강종만 영광군수의 친척 J(5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강 군수를 2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오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J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S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된 J씨는 S업체 대표 A씨와 친척 관계며, S업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자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광군은 법성면 검산마을에 하루 2천300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총사업비 200억 상당)을 오는 2009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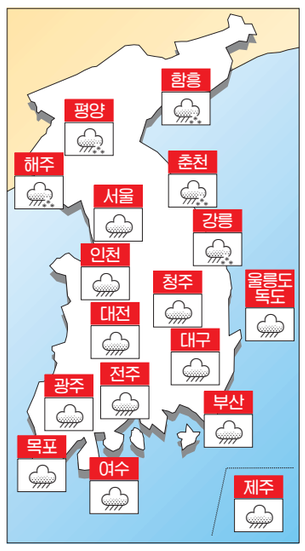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산 준비하세요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2월 13일 (음 12월 26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0~11℃
목 포	흐리고 비	2~11℃
여 수	흐리고 비	3~10℃
완 도	흐리고 비	3~11℃
구 례	흐리고 비	-3~12℃
해 남	흐리고 비	-2~12℃
장 흥	흐리고 비	-2~12℃
고 흥	흐리고 비	0~11℃
순 천	흐리고 비	-4~11℃
영 광	흐리고 비	1~12℃
진 도	흐리고 비	0~11℃
전 주	흐리고 비	0~11℃
남 원	흐리고 비	-3~11℃
정 읍	흐리고 비	0~11℃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3.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3.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4.0m

목 포 밀물 10:32 22:03 썰물 02:28 17:08
여 수 밀물 06:09 17:52 썰물 12:36 --:--

▲해뜸 07:22 ▲해짐 18:12 ▲달뜸 03:51 ▲달짐 13:1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 씨						
최저/최고	2/5	-3/6	-2/8	3/8	4/9	1/10

광주·전남 오늘 낮 최고 20㎜ 비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3일 낮부터 광주·전남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전부터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서 "예상 강수량은 10~20㎜ 정도며, 오후 늦게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한 때 내륙과 해안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또 "13일 밤 늦게 남해서부 먼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평균풍속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대흑산도·홍도에 강풍예비특보가(평균풍속 초속 14m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 이상)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비는 14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낮부터는 눈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하지 말자 광주시의회·구의회 여성의원 20여 명이 12일 오후 2시 광주우체국 앞에서 '광우병 의심 소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발암물질 다이옥신까지 발견된 미국산 수입 소고기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광우병 의심 소고기 수입 저지 운동에 광주시민의 성원과 지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남대 등 5개대학 내년 수시모집부터

검정고시 출신 제한 기준 폐지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전남대·경남대·경북대·연세대·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시 모집 때 전남대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경북대·연세대·한양대는 일반전형에서, 경남대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내신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경북대는 검정고시점수·면접·수능성적 최저등급을 적용하고, 한양대는 다단계전형을 일괄전형으로 바꾼 뒤 통합논술 성적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전남대는 검정고시 출신자들끼리 경쟁하는 특별전형을 신설키로 하고 전형방법은 논의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9일 대학이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5개 대학에 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울→목포행 열차 30분 지연 환불소동

지난 11일 밤 서울 용산에서 출발한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가 전동차고장으로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도착, 승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였다.

목포역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5분 서울 용산에서 출발한 목포행 제1411호 무궁화호(기관사 김모·44) 열차가 예정보다 34분 늦은 12일 새벽 3시41분 도착했다. 이날 지연 사고는 전북 부용역에 도착한 열차의 전동차가 갑자기 고장나, 인근 익산역에 있던 예비 전동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50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일어났다.

목포역에 도착한 승객 90여 명 중 11명은 이날 환불을 요구하며 2시간 20분가량 농성을 벌여 1만원권 KTX 할인권을 지연 보상금으로 받았다.

한국철도공사 여객 약관상에는 무궁화 열차의 경우 4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시 현금 액면가의 12.5%를, 80분 이상 120분 미만 시 25%, 120분 이상 지연시 50%의 현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민 목포역장은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여객요금의 현금 액면가 12.5%보다 많은 25%에 해당하는 1만원권 KTX 할인권을 지연 보상금으로 전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정다빈 사인은 자살"

국과수 부검 결과 발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2일 오후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탤런트 정다빈(여·27·본명 정혜선)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정씨가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부검 후 브리핑에서 "시신에서 전형적인 목매 자살한 시신에서 보이는 피멍(울혈)과 눈꺼풀 뒤의 혈점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타살로 의심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손목에 상당히 오래된 상처가 있지만 이는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의 시신은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발인은 13일 오전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교통방해 도심집회 금지

평화시위연대 입법 청원

자유주의연대 등 13개 단체로 결성된 평화시위연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서를 1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집회·시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력이 집회·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 여타 집회를 막기 위한 '유령집회'를 금지하며 ▲교통을 마비시키는 도심 집회의 금지 ▲현행 50~300만원인 집시 관련 벌금의 5~10배 증액을 통한 형의 현실화 ▲시위대의 총포 및 흉기 준비를 묵인한 단체 대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규제안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티공연·초콜릿 증정 등

밸런타인데이 풍성한 이벤트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광주시내 호텔·백화점·영화관들이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광주 호텔 프라도에서는 14일 오후 7시 '밸런타인 사랑 채우기' 특별공연을 갖는다. 젊은 연인들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B-boy와 요한 스트라우스 ▲사랍을 점지하는 매직 퍼레이드 ▲드림커플 메이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자격은 30세 미만의 남·여. 관람객 모두가 캐스팅되어 참여하는 '파티공연'이라는 게 특징이다.

롯데시네마는 14일 당일 영화를 관람하는 커플 고객 중 100명에게 초콜릿을 증정한다. 또 '젠가 쌓기' 보드게임에 참여한 커플을 추첨, ▲'웃찾사 개그 콘서트' 티켓 ▲자바 'Get 1 free'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나만의 초콜릿 만들기' 행사를 갖고, '사랑의 별자리 운세상담' 서비스를 한다.

광주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세계 초콜릿 기획전을 열며 '사랑을 전하는 주얼리 초특가전' 코너에선 구매 금액 10%를 상품권으로 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